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1)

함줄함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_ 요 11:25-26

2013년 부활절 빛날, 주님의교회 예배드라마



3월 31일 부활절, 주님의교회에서는 2012년에 이어 두번째로 부활절 특별예배가 <부활, 그리고 생명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예배드라마로 드러진다. 이 예배드라마는 완전히 새로 창작된 극본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부제인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의 과정을 요나의 수난 과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하고 무한한 사랑과 의지를 통해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모든 배경과 준비, 실행의 모든 과정이 온전히 주님의교회 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진 이번 예배드라마는 그 자체로 부활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예배는 주님의교회 성도를 중심으로 한 9시 30분의 1부 예배, 오후 12시 30분의 2부 예배에 이어, 지역 주민과 타 교회 성도들을 위한 3부 예배가 오후 5시에 드려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새벽 5시 30분에 부활절 기념 송파구 연합예배 역시 주님의교회에서 드려지게 되는데, 이 때에도 이 예배드라마의 하이라이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관련기사 5면. <함줄함울>

정신학원 다목적 교육관 착공



3월 18일 다목적 교육관 착공 감사예배가 드려졌다. 약 7개월 동안의 공사를 마친 후 10월 말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 3월 18일 오후 2시, 정신학원 다목적 교육관 착공 감사예배가 정신여고 교정 건축 현장에서 정신학원과 주님의교회 관계자등 내외 인사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졌다. 이 교육관은 5층 규모로 도서관, 선진형 교과교실, 다목적실로 구성되며, 올해 10월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주님의교회에서 35억원을 지원하여 건축되는 이 현장을 조선일보 3월 22일자에서 “건물 욕심 버렸더니 세상이 다 ‘교회’가 되더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하기도 했다. <함줄함울>

/ 부활절 메시지 /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15:19-22)

성도님들과 함께 맞이하는 여섯 번째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근본토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땅에 기독교 신앙공동체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교회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참된 약속의 말씀임을 신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고난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이기실 그날,
모든 사람의 부활과 만물의 새 창조의 그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부활절은 교회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뜻 깊은 절기를 맞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교회가
예배드라마 형식의 특별예배를 갖게 된 것은
무척이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올해 준비한 예배드라마는
구약의 예언자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선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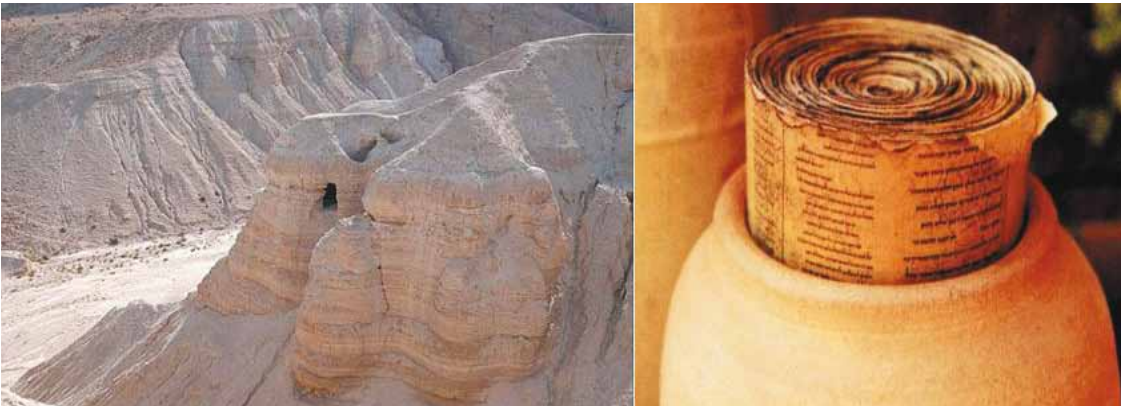
부활절 특별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 가족들, 이웃들이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이 크신 긍휼의 마음을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살렘!

2013년 부활절 아침
담임목사 박원호

쉽고 재미있는 기독교의 역사 4

이단들의 도전과 초대교회의 정경 채택 -1



사해사본(Dead Sea Scroll)이 발견된 쿠파 동굴(왼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해사본을 보관한 항아리(오른쪽)

이번호에서는 우리가 애독하는 성경의 변천사를 공부해보기로 하자. 2세기 말엽까지 초대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기독교의 경전은 구약성서였다. 현재 신약성서 정경(正經) 27권 중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바울서신들인데 48년~58년 사이의 기록으로 추정된다. 그 뒤를 이어 마가복음(60-70년), 마태복음(70-80년), 누가복음 및 사도행전(80-90년), 요한복음(90-100년)의 기록으로 이어졌다고 추정되지만 이러한 바울서신과 사복음서(四福音書)가 공식적인 경전으로 인정받은 것은 훨씬 후대의 일이다. 2세기 초엽 로마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클레멘트(Clement of Rome)가 바울 서신의 일부분을 자주 인용하였으나 사복음서의 명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역시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교부(敎父) 이그나티우스(Ignatius)도 바울 서신을 인용하였지만 정확한 명칭이나 출처를 말하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2세기 초엽까지는 문서화 된 정경보다 대부분 구전(Oral tradition)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110년부터 신학자로 활동하였던 파피아스(Papias)의 글에서도 단편적이거나 이러한 구전 존중의 전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130년 이후 그의 글에는 마태와 마가복음서의 일부분이 인용되었는데 특히 마가복음서를 쓴 마가가 ‘베드로의 서기’였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복음서에 최초로 이름이

붙여졌다. 파피아스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신학자 폴리카프(Polycarp)의 글에서도 약 100회에 걸쳐 예수님 행적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정확한 출처는 밝히지 못하였으니 이 역시 당시의 구전을 인용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이처럼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이 언급한 바울서신과 복음서의 단편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필사본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전의 인용으로 시작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급속히 바뀌어 갔으니 각종 이단 시비와 맞물려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면서 부터였다. 그들에게 이단 사상의 도전에 대응하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애쓴 일이 있었다.

첫 번째 조치는 니케아 공의회로 대표되는 각종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 정통신학 사상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며 두 번째 조치는 신약성서의 정경화(Canonization)를 통한 기독교 경전의 확립으로 공식적인 교리적 기초를 만드는 일이었다.

구체적으로 2세기 중엽 파피아스와 폴리카프의 사상에 가장 강력한 이단적 도전이 있었으니 소위 영지주의자들(Gnostics)이었다. 그들은 초대교회보다 먼저 복음서의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자신들의 영지사상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하였다. 즉 산상수훈의 내용이나 부자와 거지나 사로의 이야기 등을 영지사

상으로 해석하자 초대교회는 이런 이단종파가 잘못 해석한 복음서의 내용을 바로잡아 정경화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2세기 중엽 구약성서의 가치를 부정한 마르시온(Marcion)의 도전도 신약성서의 정경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바울서신 중 10개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사복음서 중 누가복음을 유일한 정경으로 채택하였다. 초대교회는 이에 맞서 정경에 대한 논리를 공식적으로 제시해야만 했으니 결과적으로 이단자 마르시온 사건이 초대교회를 각성시키는 자극제가 된 것이다.

156년 북아프리카의 이단 몬타니즘(Montanism)의 등장도 초대교회가 정경 채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로마의 교권을 부정하고 사제 계급의 정통성에 도전하는 이 북아프리카 중심 이단 사상을 막기 위하여 정경의 채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사가 것이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기독교의 공식적인 경전은 구약성서였다. <이강찬 목사>

주님의교회 카툰

<부활의 아침>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42회>

不順從(불순종), 悔改(회개)

2013년 부활절 예배드라마 주제는 요나(Jonah)선지자의 불순종과 회개이다. 불순종으로 물고기 뱃속에 3일간 갇히는 체험을 통하여 회개하고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였다.

★順(순할 순) : “물 흐르는 모양”의 川(내 천)에 “생각하는 기능”의 頁(머리 혈)을 결합시켜 <물이 흐르듯 순리적으로 생각을 하니 순하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從(좃을 종) : “많은 사람이나 걷는다”는 뜻의

彳(자축거릴 척)과 “길 또는 간다”는 뜻이 있는 辵(쉬엄쉬엄 갈 착)의 변형체를 합쳐 <앞서 걷는 사람을 따라 쉬엄쉬엄 좃아간다>는 의미가 되었다.

★悔(뒤우칠 회) : 心(마음 심)의 변형체 忄(심방 변)에 “늘, 항상”을 뜻하는 每(매양매)를 합쳐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는 것이 뒤우침이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改(고칠 개) : “自身(자신)을” 뜻하는 己(몸 기)와 “치다, 위하다, 애쓰다”는 뜻이 있는 攴(칠 복)의 변형체 攴(등 글월 문 방)을 결합하여 <자신의 허물은 자기가 매를 침으로써 고칠 수 있다>는 글자가 되었다.

<함술함술>

不順從(disobedience)의 意味

시키는 대로 복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음을 말한다.

悔改(repentance)의 意味

罪(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지었음을 깨닫는 일이다. 죄인을 救贖(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죄로부터 돌아키는 행위를 말한다.

文字的(문자적)意味

★不(아닐 불,부) : 상형문자로써 “꽃의 씨방은 없고 꽃대만 서있으니” <열매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수련회 소식

소년1부 겨울 수련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요한1서 4:16)” 말씀을 주제로, 2013년 2월 23일(토) 오전 9시30분~저녁 8시20분까지 소년1부 수련회를 가졌다.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공동체 런닝맨과 올림픽’ 코너에서는 활발한 반별 대항 올림픽 경기를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경험을 가졌다. 이어서, 조별 성경공부와 발표회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협동함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윤주 전도사>

팝콘트리 중등부 봄맞이 수련회 “우리는 하나!”



2013년 2월 22-24일, “우리는 하나(We are the one)” 라는 주제로 봄맞이 수련회를 가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에베소서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공동체 활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 “하나님나라를 찾아서” 라는 프로그램의 십자가 코스에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감으로 예수님의 고통과 사랑을 깊이 새겨본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십자가 죄 고백” 시간을 통해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일 전도사>

비전트리 고등부 청소년캠프 “예수 십대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2013년 2월 17일,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자’ 라는 목표를 마음에 품고, 2박 3일간의 캠프를 다녀왔다. 출발할 때의 서먹함을 벗어버리고 모두가 하나가 되었던 성령 집회, 고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례요한의 여정을 따라가는 미션 게임, 함께 기도하고 간증을 나누었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었다. 2박 3일간의 길지도 짧지도 않았던 수련회를 통해 자신이 누구이며, 태어난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김예지 스탭>

사랑나무 교실을 소개합니다

발달장애와 자폐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 토요일 10시 ~ 12시까지 문화교실도 열려

주일 아침 11시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면서 사랑나무 교실로 들어서는 아이들. 말로는 인사를 잘못 하지만 선생님과 허그하면서 즐거워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일 사랑나무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5년 전 주님께서 발달장애 아이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사랑의 공동체를 주님의교회 안에 허락해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기며 하늘나라를 만들어 가는 사랑의 교실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정신과,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와 똑같이 살고 싶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작은 공동체입니다. 아이들과 교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교육 목표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닦아가기, 찬양을 통해 영적이며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친구들의 사랑을 경험하기, 기도 훈련을 통해 좋은 습관 가지기,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하신 일을 알기, 삶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위해 노력 하는 것입니다

예배시간은 11시30분부터 12시45분 까지 드려지고 이 시간에 예배, 율동 및 공과 공부와 미술치료(종이 접기, 그림 그리기), 음악(밤벨, 다양한 악기) 연주를 병행 합니다. 3월 16일부터는 토요일마다 사랑나무 문화교실을 4층 대회의실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특별활동시간에 아이들과 더 가까이 하나가 되는 시간도 갖습니다.

장애 친구들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진 성도나 미술치료나 음악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사랑나무 예배에 참여를 환영합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의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지요, 장애우가 차별 받지 않는 온전한 주님의교회가 되는 사랑나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교우들과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나무 유정식 안수집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키웁니다



악기 연주를 배워 전교인 앞에서 공연도 합니다

로템나무

▶ '로템나무' 는 일상에서 만난 신앙의 체험과 은혜의 기억을 칼럼 형식의 글로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많은 투고 부탁드립니다.

죽음의 준비는 품위있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이란 불안 속에서 삶을 살아 간다. 오죽하면 숫자 4를 기피해 죽음을 멀리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는가 보다. 죽음을 준비하면 곧 죽을 것이란 잘못된 생각일수도 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더욱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의 직업이 죽음을 맞이한 고인들을 만나는 장례업에 종사하기에 더욱 더 그러하다. 특히나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삶의 연장선상으로 거처를 하늘나라로 이사한다고 보면 그간 삶에 대한 최종정리의 기간인 만큼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죽음을 맞이했어도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주기 위해 노력해야겠고 죽음을 준비하는 후손들도 최선을 다해 천국



환송행사를 이루어야 하는데 슬픔에 젖어 허둥지둥 준비없는 3일간을 장례식장에 의지하여 보내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죽음을 준비하는데도 효와 예의 범절 및 의식행사가 있다. 기독교인의 죽음을 믿음없는 장사꾼들에게 의지하여 3일간의 환송행사를 치른

다면 아름다운 죽음의 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3일만이라도 아름답게 살았던 삶을 재조명하고 그의 유언을 받들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으로 만들 수 있는 죽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경은 죽음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땅에서 33년간 사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철저히 준비하셨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로 거처를 옮겼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찬양과 기쁨 속에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죽음의 준비는 품위있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오섭 피택안수집사>

세례를 통해 거듭난 기쁨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개인의 믿음이나 구원의 확신 보다는 가족들이 다니기 때문에 의례히 다녔고, 그래서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해야하는 세례는 회피하고 미루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방황도 했었고, 주변에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친구들이나, 가족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기에 너무 부족해 보였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체플 참석과 기독교 관련 과목을 들으며 학문적으로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는데,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고 올바르게 살

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교회에 다니기 보다는 여러 교회에 예배만 참석하여서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고, 한국에 와서 주님의 교회에서도 예배 참석만 해오다가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고 용기를 내서 세례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례교육을 받으며 저와 비슷한 신앙적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짧지만 즐거웠던 세례교육은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들이었고 앞으로의 믿음생활을 견고하게 해줄 주춧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저는 주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저의 인생이 주인이시며, 진정으로 주님만이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 보다는 아직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새로 믿음을 갖는 분들에게 모범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결심한 것을 잘 실행할 수 있을까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제가 나아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계시 것을 알기에 참으로 행복하고 또 기쁩니다. 세례교육에 배려하고 도와주신 교우님들과, 박 목사님의 기도내용은 저에게 많은 힘을 주었고, 앞으로도 더 신실 되고 충실한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민명준 성도>

2013년도 전반기 입교 세례식



전반기 입교 및 세례식이 2013년 3월 24일 4부 예배에서 드려졌다. 이날 입교 및 세례를 받은 성도는 다음과 같다.

입교 : 김세민, 김인철, 조영래, 주영은,
세례 : 광마리내, 구운창, 김희재, 나광진, 류재일, 문 경, 민명준, 박진오, 손영숙, 유세림, 윤영택, 윤혜옥, 이다은, 이미진, 이영철, 전소영, 최미애, 최승아, 최윤호, 김민영, 선보미, 신서원, 신정원, 안병선, 홍주찬, 황수민

이 국수 한 그릇에 담긴 것!



완도에서 온 다시마, 무, 여수 멸치, 대파, 양파, 마늘, 청양고추, 황태머리, 생강, 후추, 간수 뺀 신안 천일염, 소면, 그리고... 말없이 섬기는 봉사자의 정성과 헌신.

요즘 주방 봉사자가 부족해 힘이 부칩니다. 누구든, 언제든지, 어떻게든, 저희와 함께 해 주시면 더욱 맛있는 국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010-2678-2007로 전화 주셔요.

2013 부활절 예배드라마 알면 더 은혜로운 열 가지 열쇠말

2013년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드리는 예배드라마, '부활, 그리고 생명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과 치유를 만나는 귀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예배드라마에 참여하는 주님의교회 성도와, 지역 주민, 다른 교회의 교인 여러분을 위해서, 이 특별한 예배에 대한 궁금증 열 가지를 묶었습니다.

하나. 예배드라마와 성극

예배드라마는 전통적 제의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쉽게 전달하고자 했던 중세 교회의 전통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드라마는 성극과는 다릅니다. 성극에서는 관객의 참여가 없지만, 예배드라마에는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드라마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성도는 니스웨 백성 역을 하기 위해 배수건을 준비합니다.

둘. 숫자

- 7: 예배드라마 장 수
- 76분: 예배드라마 진행시간
- 115분: 부활절 특별 예배 총 소요 시간
- 400곳: 초청한 지역 교회
- 745명: 예배를 준비한 총 인원
- 3,330석: 예배드라마 참여 가능한 주님의교회 내 공간
- 6,500명: 예배 참여 예상 인원

셋. 힐링의 시대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사람들간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정치와 남북관계도 어렵습니다. 이 모든 세파에 상처받고 고된 나날을 건디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입니다. 불순종한 요나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에서, 우리는 우리 속의 또 다른 어둠으로 상처받은 나를 돌아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창작 드라마에는 연세대 정신과 교수도 참여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힐링'을 경험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넷. 니스웨

니스웨는 '합의'라는 뜻의 지명입니다. 고대 앗수르 제국의 수도였으며, 현재 이라크의 한 지역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셀 강이 합쳐지는 지점인 모술 강 건너편에 유허가 있습니다. 당시 최대의 도시였으나 기원전 612년 바벨론에 함락된 이후 폐허가 되었습니다. 회개했던 니스웨 백성들이 다시 죄를 지으며 폐허가 된 것을 묵상하고, 지금 여기가 또 다른 니스웨가 아닌지 돌아켜볼 일입니다.

다섯. 예수와 요나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 없나니 요나가 니스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중략) 심판 때에 니스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라(요나 1:9-12) 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9-32절 말씀

여섯. 요나

요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러 니스웨로 가야 하지만 불순종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만에 살아나 니스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지만, 이민족인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용서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두들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다른 얼굴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일곱. 박넝쿨

요나가 니스웨 성에서 나가 그 성 동편에 기거할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키워서 머리 위를 가려주셨습니다. 요나는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박넝쿨을 무척 아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튿날 그 박넝쿨을 벌레와 동풍을 동원해서 시들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눈앞에 나타났다가 없어질 박넝쿨과 같은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덟. 구성

- 이번 예배 드라마는 요나의 방황과 예수님의 수난이 시공을 초월해서 연결되는 극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1장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는 요나에 내린 시험
 - 2장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 3장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예수님
 - 4장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와 예수님의 만남
 - 5장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니스웨 백성
 - 6장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요나
 - 7장 회개하는 요나와 위로하는 예수님

아홉. 떼제 찬양

이번 예배드라마에서도 작년과 같이, 성도들은 떼제 찬양을 함께 부르며 드라마에 동참합니다. 떼제 찬양은 떼제 공동체에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떼제 공동체는 1940년 스위스 출신 청년 로제 수사로부터 시작한, 나눔과 화해를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프랑스 떼제에 모여 공동 기도과 찬양을 나눕니다. 떼제 찬양은 반복해서 부를수록 영적 해방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열. 다시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중요한 무역 시장이 있던 곳입니다. 요나 당시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니스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요나가 옹바 항에 도착했을 때 마침 다시스로 출발하는 배가 있어서 탔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무엇인가 다른 길을 가는 데도 일이 척척 잘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를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활, 그리고 생명의 회복
—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 —

부르심의 길에 서서

가정과 공동체에 밀알이 되길 기도하며...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첫째 사진은 딸 다원이...장모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하나님께서 다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음성을 들어서 '다원'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근데 요즘엔 다 원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됩니다 ^^). 두 번째 사진은 개구쟁이 아들 윤성이...믿음 윤(允), 이룰 성(成)을 써서 우리 가정에 믿음을 이루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제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기도하기는 정말 이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그 이후 세대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을 주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신앙의 뿌리는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친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지만 외가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바른 시골생활로 인해 신앙생활을 잘 하지는 못하셨지만 삶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사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어머니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육체적으로 많이 아프셨고, 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우리 가정은 한 명 한 명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 3째 어머니를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내며 "하나님, 어머니께서 우리 가정에 한 알의 밀알이 되셨는데 이제 제가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그리하여 제 다음 세대들은 정말 하나님만을 아름답게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다짐했습니다. 이런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저를 목회의 길로 가게 하셨고, 또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내 또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장모님)으로부터 선한 믿음의 본을 보면서 자라서 지금의 저의 부족한 부분(신앙, 성격 등)을 잘 채워주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모님은 기도의 어머니로서 우리가정을 위해, 저의 목회를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면서 늘 잊지 않으려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이며,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9~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는 말씀입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속한 가정,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기도하며,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내가 속한 곳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해봅니다. 때로는 광야 같고, 사막 같을지라도 거기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이 길을 가렵니다.

<장수현 목사>

부활절 기념 칸타타 “오늘도 살아 계신 주님”



2013년 4월 3일 수요일에 시간에 부활절 기념 칸타타가 연주될 예정이다. 호산나 찬양대가 '오늘도 살아 계신 주님'이라는 곡을 연주한다. 이 칸타타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주제로 작사 작곡된 곡이며, 작곡자 존 피터슨은 평생 교회음악과 가스펠에 전념했던 음악가이다. 이번 연주의 특징은 서양 르네상스시대 전후에 그려진 명화들을 함께 감상하도록 준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음악과 미술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기대된다. <함글함글>

■ 교회단신

정신학원 다목적 교육관 계약



정신학원 다목적 교육 공간 증축 공사 계약이 2013년 3월 15일 주님의교회 4층 엘림실에서 주님의교회 박원호 담임목사와 엄정한 입찰 과정을 거쳐 선정된 건축사인 다짐건축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되었다.

기초 음향 세미나



지난 3월 16일 (토) 2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미디어분과 위원회 주관으로 방송과 음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기초 음향 세미나를 열었다. 교육부서별 전도사들과 다른 교회 교인 등 방송에 관심이 많은 30여 명이 참석했다. <함글함글>

교회 사역 일정

- 31(주) 부활주일, 송파구 부활절 연합예배(오전5:30)
1부예배(오전9:30), 2부예배(오후12:30)
3부예배(오후5시, 이웃생명 초청예배)
- 4.3(수) 부활절 기념 칸타타
- 4.5(금) 겨자씨와 함께 하는 금요기도회
- 4.13(토) 전교인 걷기대회
- 4.17(수) 1/4분기 제직회
- 4.22(월) 제178회 평양노회
- 4.23(화) 12단계 성지순례 (4.23~5.3)